상대를 보고 일어나는 마음도 내 마음 가운데서 다스릴 줄 알아야

☞ 19면에서 계속

함돼서 한데 합쳐져서 이렇게 있으니 한 번 그걸로 이를 닦으면서 모래는 뱉고 물은 삼켜 봤습니다. 왜 그것도 삼켰냐 하면은 물이 출출 흘러 내려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라도 목을 축여야 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모든 게 나에게 어떠한 독약이라도 바로 내 생각에 의해서 그게 독이 빠질 수도 있고 독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또 종류가 암모니아도 되고 모든 가스도 되고, 그 석유 기름이 모두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고, 이 진흙도 항생제의 역할도 하는데 모든 그 폐의 근원도 없앨 수 있는 그런 항생제 역할도 한다 이겁니다. 돌에도 이 생명이 있고 약이 되고 모두가 약이 아니 되는 게 없는데 왜 그 종류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야만 합니까.

그래서 그 포천에 지금도 계시지만 아, 그 집의 영감님은 아, 벽에 그 저 뭡니까? 진흙, 그거를 만날 그냥 맛있게 먹었거든. 맛있게 먹은 게 먹은 게 아니에요. 폐가 너무 망가졌으니까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숯도. 숯은 왜? 이거는 숯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탄 거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탄 거기 때문에 끓는 물에다가 갖다가 넣어서 다시 그 물을 식혀서 먹으면 열이 내린다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물도, 말하자면 메뚜기나 메뚜기같이 생긴 오줌싸개나 이런 것도 다 선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종류를 쫓아다니면서 이름 찾고 뭐 찾고 종류 찾고 이럴 게 없습니다. 한 점의 마음에는 우주 섭류의 그 근원이, 약뿐만 아니라 전체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렇게 방황하고 살고 고에서 휘달리고 앨 쓰지 마세요. 내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고도. "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거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말할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체험하고 진짜 우주의 모든 근본이 여기 한 점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거기에서 다 내가 아쉬울 대로 꺼내 쓸 수 있으니 뭐가 급한 게 있고, 뭐가 겁나는 게 있고, 뭐가 걱정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 아님이 없으면서 항상 겸손하면서도 그렇게 그 도도하게 흐르는 물과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며느리 되고 싶어요

질문 저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하면 시부모한테 효도하고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살림을 하다 보니 시부모의 생활 방식과 충돌을 하게 되고 마음이 일어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한마음 되어 잘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마음 살림을 이끌어 나가야 할는지요.

답변 여러분이 공부한다, 부처가 됐다 이러더라도 그 부처가 되기 이전에, 수억 겁을 거치면서 공부하면서 나올 때에 뭔 짓은 안 했겠습니까? 과거에 강도질을 했는지 살인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몰랐을 때 내 모습, 잘못했을 때 내 모습, 내가 알기 이전에 몰랐을 때 내 모습으로만 모두 본다면 밉고 곱고가 따로 없죠.

지금 내가 배우고 가는 내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항상 자식들도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탈이 나는 겁니다. 자녀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자녀로서 한마음이 된다면 폐단이 올 일이 없습니다. 부모한테는 부모한테로 들어가서 부모가 돼 버리면, 그 기준에 선다면 폐단이 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에서 항상 얕보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넌 밥 빌어먹는다." 부모더러는 하는 말이 "당신네들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찌 한마음으로 이 우주 천하를 통일을 하겠습니까? 허허허, 한마음으로 말입니다.

모습은 제각기 다르지만, 차원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 모든 그 마음들은 본래부터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부터 잘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물질에 끄달리고 먹고 사는 데 끄달리고 애착에 끄달리고 욕심에 끄달리고 모두 그러다 보니깐 잘못된 거지, 애초부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 부처님도 자기가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 굴러왔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얕은 것도 높고, 높은 것도 높고 평등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모두 잘못되는 거를, 고통을 알아야 고통이 고통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춥고 떨릴 때 뜨거운 엽차를 한잔 마셔 보십시오. 춥고 떨릴 때 말입니다. 엽차를 마실 때에 뜨겁고 시원하고 그렇죠? 뜨거운 걸 알기 때문에 시원한 겁니다. 뜨거운 걸 모르면 시원한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어떠한 고가 닥치고, 애고가 닥치고, 병고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걸 재료로 삼아야지 허공을 허우적거리듯 '나는 인제 죽었다.' 하고 신경질을 내고 온통 이 야단들을 치면 몸 상하고 집안 망하고, 식구들이 전부 제각기 헤어집니다, 마음들이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의 마음이 잘못됨으로써 식구가 다 망가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병든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가난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름에 끄달리지 맙시다. 모두가 이름에 끄달리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정말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허, 너도 예전에 저렇게 몰랐었지? 허허, 내 모습 같구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진정코 애닯고 애처롭고 그렇게 되지, '저걸 몰라서, 저거 저렇다.'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또. 여러분이 지혜가 풍부해야 조건 없는 자비도 나오지 지혜가 풍부치 못하면 조건 없는 자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하고 부모를 위한다 하더라도 자유스럽게 놔두고 행해야지, 말로나 행동으로 억압하고 이렇게 한다면 마음이 넓어지려야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세요. 저 산천초목의 모든 푸르름도 가만히 보세요. 제 이파리가 져서 떨어지고 져서 떨어지는 것이 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망가뜨려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것도 망가뜨린다고 할 수도 없죠. 잘못되고 잘되는 것은 물 흐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말하자면 마음들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마음 떠나서 계발할 수 없고 마음 떠나서는 원력을 세울 수가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마음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계발이 될 수가 없고, 창조력을 이룰 수가 없고,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금도 장농 안에 가만히 넣어 두고 있으면 늘지 못한다, 금이 말이에요. 그러니깐 장롱 속에서 금을 꺼내서 자꾸 굴리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는 금이 많아져서 모두 나누어 주게끔 되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 한 점의 마음에는 우주 섭류의 그 근원이,
> 약뿐만 아니라 전체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왜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습니까.
> 그렇게 방황하고 고에서 휘달리고 앨 쓰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안에서 상대를 보고 일어나는 마음도 다 내 마음 가운데서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다스려서 이렇게 놓을 줄 알아야만이 정식으로 참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다. 모두가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됐을 때 아버지라고만 고집하면 아들 노릇은 어떡하며 친구 노릇은 어떡하며 남편 노릇은 어떡하느냐 이 소립니다.

그와 같이 이 마음 자체가 천차만별로 보고 듣고 행하고, 모든 거를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을 그냥 마음 가운데다 척 놨을 때에 마음이 편안해야, 일하면서도 편안하고서서 가다가도 편안하고 앉아 있는데도 편안하고 똥을 눠도 편안하고 이래야 좌선입니다. 이게 좌선이자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활에서 고통이 오는 것을 그 고통만 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이 고통이 어디서 온 거를 안다면, 아까 뜨거운 것을 알아야 시원한 것을 안다 이랬죠. 그와 같이 그냥 시원하게 대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 걸 모르니까 허우적거릴 수밖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를 알려 주기 위해서 관법을 정했는데, 그 관하는 거는 그냥 '아이, 주인공! 주인공이 잘해 주시오.' 하고 말로만 이럭하고는 거기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진짜로 인간이 어디서 오고, 어떡해서 이렇게 끌려서 돌아가는지, 이 모든 것이 그 운명 팔자가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안다면 대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는 것을 일러 줘도 대치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거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과 이 사람의 마음 근본을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다' 이랬는데도 그 주인공을 믿고 놓을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그냥 '너 알아서, 너밖엔 할 수 없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놔야 되는데, '해 주시오' 해 놓고는 그냥 바깥으로 막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난장판이 되니까 이 속에서도 의식들이 난장판이 될 수밖에. 나뭇가지를 갖다 여러 개를 모아서 놓으면 부러뜨릴래야 부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거든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헤어지면 그냥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편안함이 내생에도 이어질까요

질문 마음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편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편한함이 내생에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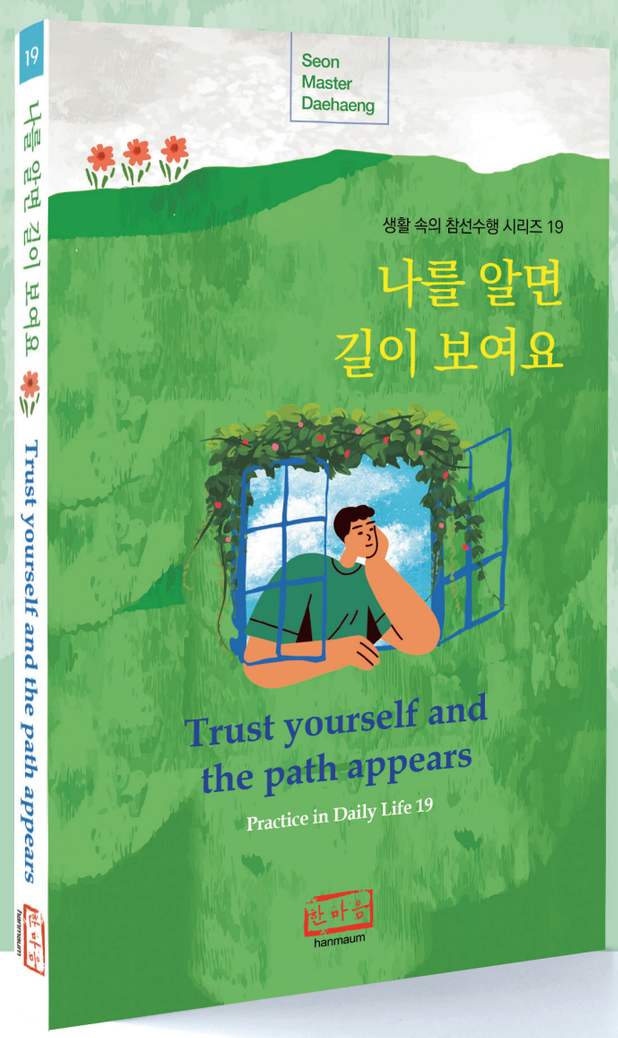
답변 오늘 만약에 남을 도와서 좋은 일을 하고 내 마음이 즐거웠다면 내일까지도 즐겁죠. 그런 인연을 맺었다면 더불어 같이 보이지 않는 데서 모두 빈손으로 돌봐 주게 되고, 없는 손이 와서 돌봐 주게 되고요. 또 없는 손이 있는 손으로 둘이 아니게 포함이 돼서 귀인이 돼 가지고 다 돌봐 주고, 가는 족족 이렇게 돌봐 주게 되죠.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모두 모르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체가 다 음파가 통해서 나를 도와주게끔 되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러고도 내 마음의 다스림이 이 육체 안의 모든 생명의 의식들에게 통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통하게 하지 마세요. 모두가 인의롭고, 자유스럽고, 슬기롭게 대치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용기와 그 믿음을 가지고 해 나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병고가, 죽을 병고가 온다 하더라도 그건 대치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